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선교 이야기

김 정 운(목사, 천안 광덕교회)

1. 들어가는 말

현재 농촌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가? 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농촌에 아동,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농촌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라 농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언제인데” 라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속해 있는 지역에 아동,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증가한다는 일은 반가운 현상인데 안타깝게도 늘어나는 아이들 대부분은 결손가정 자녀들이다. 도시에서 살다가 가정이 해체되어 생활고로 이사한 한부모 가정 자녀, 부모의 양육이 어려워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을 수밖에 없는 조손 자녀들,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농촌 모습이 아니기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동센터에 들어오는 아동들이나 센터와 연결되어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대부분 이러한 결손자녀들이다.

그나마 학업성취도가 높고 경제적 능력이 되는 가정 자녀는 도시

로 유학 보내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자녀들은 농촌에 남는다는 인식으로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패배주의적인 의식도 남아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으로 학력수준이 저하되고 비행으로 이어져 음주, 흡연, 도박, 성문제, 가출 등의 일탈행동이 심각한 형편이다. 필자는 수년 간 지역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 가정, 학교를 통해 노력해 보았는데 한계에 부딪혀 바쁘다는 핑계로 손을 놓아 버리곤 했다.

농촌에 사는 아동, 청소년들은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차별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아동,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이다. 농촌의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유해한 환경 차단, 양질의 교육, 문화여가활동, 진로에 대한 활동 등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 교회가 공공성을 갖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비록 적은 수의 학생들이지만 현장에 맞는 길이 있을 것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중 현재 36%가 노인(65세 이상)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군 단위지역에서 자녀를 낳으면 수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출산율과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농촌지역에 아동, 청소년 복지선교의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는 자체가 한계일 수밖에 없기에 필자가 지난 10여년 운영해온 광덕교회의 지역사회봉사선교의 한 축인 아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며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농촌 아동, 청소년 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해왔으나 이후 비행, 일탈된 아이들을 위해 선

도의 개념으로 이어오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아동,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잔여적 개념의 복지로부터 보호적, 치료적 서비스는 물론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의 복지로 전환하고 있지만 도시에 한정되어 있다.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여건이 낙후된 농촌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공 문화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가장 귀중한 먹거리리를 책임지는 생명 농촌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3. 광덕교회 아동 복지 선교

1) 아동 공부방의 필요성

광덕 지역의 농촌아동들은 도시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교육적, 문화적 여건, 낮은 가계소득, 낮은 성취도, 사회성 부족, 학교만 의존하는데서 오는 생활지도 부족,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지도 부재, 학습여건 부족과 열의 부족, 문화공간 부족 및 문화적 접촉기회 부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었다. 면 소재지 입에도 학원도 없기에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 및 방학 기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아동지도가 더욱 절실했다.

13년 전 부임하면서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방 형태로 시작하여 운영해 오다 후에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되어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으면서 방과 후 아동센터를 통해 아동을 교육 및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2) 목 적

- 방치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며

- 식사 및 간식 제공으로 성장기 아동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며
- 숙제 및 학습지도와 독서를 통해 학업 성취 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 견학, 기행, 캠프 및 다양한 경험 및 문화적 접촉 기회를 증대하고
- 정서지도, 특별 프로그램 제공으로 전인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며
- 자존감 형성 및 사회성 함양
-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농촌에 대한 이해 및 애향심 높이기 등을 목적으로 한다.

3) 명칭 및 장소

처음에는 ‘광덕 푸른교실’ 공부방으로 문을 열었는데 정부 지원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광덕푸른지역 아동센터’로 이름을 고쳐 부르고 있다. 2000년부터 연중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는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소는 교회에 공간이 없어서 1998년에 신축한 관내 지역복지관 1층을 빌려 사용해오다 지금은 3층 복지관을 무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4) 운영 및 재정

대표는 필자가 맡고 있으며 주임교사 1인, 실무교사 2인, 식사도우미 1인이 매일 상근하며 수고하고 있다. 프로그램 영역별 여러 명의 시간 강사도 초빙하며 12명의 운영위원과 기업체 봉사자, 대학생 봉사자, 지역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재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부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 교회지원, 운영위원회 회비, 기업체 후원, 개인 후원 등으로 꾸려가고 있다.

30명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만 현재 36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다리는 아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장소 및 재정상의 이유로 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초등학교 보육교실 아동들도 연계해 보육교사 지원 재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4. 광덕교회 청소년 복지선교

1) 청소년 공부방 필요성

방과 후 학원과 학습 공간이 없는 농촌 학생들에게 상시적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학습지도를 통해 학업 성취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기의 진로 및 고민을 상담하여 바른 길로 안내하며, 독서 모임을 통해 정서 함양과 건전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학 중 체험학습, 견학, 기행, 캠프 및 다양한 경험 및 문화적 접촉 기회를 증대시키며 살고 있는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애郷심을 갖게 한다.

2) 목 적

농촌의 청소년들은 도시에 비해 훨씬 뒤지는 교육적, 문화적 여건과 부모들의 관심 저조와 생활지도 부족 및 문화 공간 및 문화적 접촉 기회 부족으로 인해 방과 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농촌 현실에 맞는 전문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방과 후 청소년 공부방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습, 문화 공간과 컴퓨터실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체계적인 학습장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독서실을 통해 학업 성취와 다양한 도서를 접함으로써 인격 수양을 한다.
- 하계, 동계 방학기간에 캠프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과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청소년 심리 및 상담을 통하여 적성 및 성격과 진로를 지도한다.
- 지역 문화 유적 답사 기행들을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운영

방과 후 상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습 지도를 하며, 청소년의 개인 성격을 파악하여 인간관계 및 진로를 지도하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에 비해 참여도나 구성원이 적은 편이다.

농촌이라 학습을 지도할 봉사자들이 부족하여 학생들 참여도 또한 낮은 편이다. 운영은 아동센터와 연계하며 자율적으로 귀가하는데 정부가 청소년센터 운영을 지원할 수 제도적 여건이 되면 앞으로 청소년 센터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4) 장학 및 후생지원

소정의 장학금을 지역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에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센터와 연계해 기업 및 단체를 통해 장학금 명목으로 여러 가정에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노회로부터 받은 사회봉사상 수상금액을 종자돈으로 하여 교우들을 설득해 장학 헌금을 매월 적립하고 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건소, 치과 병원, 종합병원과 연결해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으며 정서적 장애아들을 정기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미술치료를 하고 있다.

도시보다 덜 하지만 농촌에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치료를 위해 작년 가을부터 전문가의 처방과 생약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도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아토피자연 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황토 흙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전용부담금이 수천만 원이 들어 부득이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5) 복지관 운영

1990년대 말 교회에서 400미터 거리에 광덕면 복지관이 아담하게 지어졌다. 교회 공간이 없기에 행정 기관을 설득해 아동들을 위해 1층을 빌려 공부방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교회에서 무상 위탁 받아 2, 3층을 사용하고 있다. 1층은 노인회 사무실, 센터 주방, 공부방, 2층은 컴퓨터실, 사무실, 청소년 도서실, 3층은 주민들을 위해 노래교실, 에어로빅, 요가 등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10여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 공간이 없음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

5. 아동, 청소년 복지선교의 의의

광덕면 관내에 초등학교가 3개 있는데 교회 인근 89명과 근처에 각각 57명과 48명의 아동들이 있다. 중학교는 사립으로 1개가 있는데 두 개의 면(面)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백 명이 안 된다. 교육열이 높은 가정에서는 소수이지만 시내로 유학보내고 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아동들이 많은 편이다. 한때는 10명 이내의 아동들이 교회 다닌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47명이 되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반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아동 비율이 반이 넘는 경우는 모르긴 해도 전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

공부방 개설할 때는 선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필요성에 의해 접근했으며 교사 또한 종교에 관계없이 모집했는데 몇 년 전부터 농촌에서 봉사할 기독교 교사로 바뀌면서 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월 2회 노는 토요일에는 대외적 아동센터 행사인 여행, 연극, 영화, 음악회 관람, 물놀이, 문화 유적 견학을 하는데 교회 아동들이 대부분 참여하기에 행사 하나에 두 단체가 참여하는 셈이 되고 있다.

또한 교사 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했으며 최근에는 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젊은 부모 두 가정이 교회 출석하고 있다. 선교적인 성과물을 보고 싶어 하는 교우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고 있다.

근교의 초등학교 아동들이기에 아동 수요도 넘치고 원거리 다른 2개 학교 아이들이 올 수 없으므로 그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구상 중이지만 법적인 공간 확보와 교사 재정 부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

6. 농촌 아동, 청소년 복지선교 과제

농촌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성적이 나쁘다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학업성적으로 인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낙오자 취급을 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자신감과 책임성, 그리고 창조성이 발견되어지고 발달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뛰어들 주체는 누구인가? 주변의 모든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지역의 교회에서 선교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으로 보아 국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현실적으로 농촌의 아동, 청소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폐교된 학교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아이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가야하는 것이 교회공동체이다. 무식한 것이 용감하다고 아직 복지 선교에 대해 잘 모른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줄도 모른다. 하지만 환경이 열악하고 여건이 안 된다고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문제만 제기하는 것보다 국가와 지자체의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도시의 기계적이고 질식할 것 같은 삶을 뒤로 하고 귀농하는 가정들이 늘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우주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

가면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글에 언급했듯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계층의 결혼 자녀들을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선교적인 과제도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과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결코 크고 작고의 양의 문제가 아님을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다.

농촌 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립하기 어렵고, 열심이 기도하고 노력한다 해도 외형적 성장은 커녕 줄어드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농촌교회 선교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외쳐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고난의 현장이기도 한 농촌에서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면 영원한 선생이신 예수께서 길을 제시할 것이다.

정기구독을 신청해 주십시오

계간 「**농촌과목회**」는 일반기독교서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정기구독을 신청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신청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krhkh429@chol.com, krhkh@hanmail.net

전 화: 033-343-7791, 019-416-8098

1부 값은 6,000원이며 1년 정기구독료는 24,000원입니다.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303-21-1110-439 한경호

농 협 209-12-300658 한경호

우 체 국 200212-02-244339 한경호